

산자부, 산업기술개발 용자 1000억원 지원

산업자원부(장관 이회복)는 지난 1일 첨단기술 제품의 사업화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10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도 산업기술개발 자금용자금' 지원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 자본재 시제품 개발사업 600억원 ▲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300억원 ▲ 신기술 보급사업 100억원이며 경기 조기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상반기 중에 자금 전액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과제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과제 선정시 신청 과제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탈락시키는 상대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산업기술평가원의 중복 검토를 거친 뒤 추천하며, 그동안 제한이 없었던 연간 용자금 신청 횟수도 과제별 심사 기회 2회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자금용자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분할, 금리는 3.28%로 시중은행 금리에 따라 변동되며, 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5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산자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는 4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할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관리기관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규정하였다. 또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에 따라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및 개인은 2월 24일까지 산자부가 정하는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정통부,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본격 추진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경기활성화와 IT 인프라개선을 위하여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확정·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국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써 모두 664억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표준형 한국어 언어/음성 DB', '장서각 소장 국화자료 전산화', '국토공간영상정보DB' 등 44개 과제, 약 3000만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구축으로 청년실업자 28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정통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년보다 사업 일정을 2개월 정도 앞당겨 2월중 사업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을 실시하고, 3월에는 본격적인 DB구축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DB구축사업 참여인력의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해 희망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IT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자에게는 고용정보 제공과 취업전문 사이트 등록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구축된 DB를 편리하게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 및 주요 DB 검색시스템의 속도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이란 국가적으로 보존·이용가치가 높은 과학기술·역사·문화분야 등의 논문·책자·기록영상 등의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기청, 혁신형 중소기업 외자유치 적극 지원

중소기업청은 지난 3일 올해 혁신형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벤처캐피탈 직접투자유치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4억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40개 기업과 약 60개 기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3000만달러 이상의 외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투자기관 네트워크를 EIU, 중동 등지로 확대해가는 한편,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의 기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원대상 100개사에 대해 외자유치 전문기관의 기업진단 및 지도, 투자유치 전략수립, 사업계획서 및 영문IR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홍보자료

를 제작, 국내·외 외국투자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하여 홍보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투자기관의 관심업종, 투자시기 및 조건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 국내·외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기관의 추가 자료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별로 전문가를 배정하여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지난해에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외자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대기오염모티브 등 3개사가 독일의 Kiebart 등의 투자기관으로부터 1000만달러의 외자 유치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의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투자유치 로드쇼에서 JAFCO Asia와 5000만달러의 한국중소기업 투자 전용 펀드 결성을 추진키로 하고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온라인(www.FIH.co.kr)으로 신청하고 구비서류는 한국전선텍협회국제금융부로 오는 26일까지 우편 접수하면 된다.

2005년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안내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서는 2005년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조합·단체 제외)
- 지원제외 기준 :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폐업되거나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기준

-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INNO-BIZ) 기업 및 정보화 경영체제(IMS) 인증기업, 여성기업 등
- 중소기업청이 시행한 중소기업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사업 참여 기업 등

◎ 지원절차

- ① 사업 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여러 기업 선정 → ④ 원기관 선정·알선 → ⑤ 약 체결 → ⑥ 사업 개시 → ⑦ 사업 완료 → ⑧ 후 관리
- ※ 지원기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교육기관, 컨설팅, IT업체를 말함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05. 3. 4(금)
- ※ 단, 정보화종합컨설팅지원기관모집, 정보화산학연계교육지원기관모집, 중소기업공정혁신지원사업은 신청·접수기간 별도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 단, TIMPs사업 및 정보화경영체제컨설팅은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업종별정보화혁신클러스터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신청·접수방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참조
- 사업안내를 위한 순회설명회 개최

◎ 문의처

- 중소기업청 : 기업정보화과 (042-481-4507)
-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2005년도 '1차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안내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까지 지원
 - 정부지원금의 상한금액은 1000만원으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신청 (제품 1인증은 700만원, 시스템 1인증은 500만원 한도, 단 기존 시스템 보유시는 400만원 한도, 2인증은 1000만원 한도)
 - ※ 정부지원금의 지급은 협약서상 과제수행기간(최장 1년)내에 인증획득한 과제에 한하며, 사업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력으로 해약됨

■ 지원분야

- 제품인증분야 : CE, UL, FCC, VDE, CSA 등 87개 분야
- 시스템인증분야 : AS9100, ISO14001, TS16949, TL9000 등 4개 분야 (ISO9000, QS9000은 제외)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사종업원 5인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약액이 10만달러이상이어야 함
-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실적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3년이내기업, 신규참여기업 등 우대

■ 지원시기

- 1차 사업 신청·접수 : 2005. 2. 28(월) 까지
- 1차 사업 평가·선정 : 2005. 3. 1(화)~3. 11(금)

◎ 신청요령

-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1개품목 2개인증 또는 1개인증 2개품목
- 전년도 또는 동일년도 기 지원중인 업체는 인증획득이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해 다음차 신청이 가능함
- 신청대상 : 중소기업 단독신청 또는 컨설팅기관 대행 신청
- 구비서류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신청서 1부
 -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실적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3년이내기업, 신규참여기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신청방법

- ① 인증획득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mba.standard.or.kr>)에 접속
- ② 원가입 → ③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출력하여 날인 → ④ 신청 → ⑤ 수일 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지방청 접수처에 제출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업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신청·접수

중진공, 지역 중기 혁신 지원사업에 전문인력 투입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홍경)은 대학교수, 연구원, 컨설턴트 등 전문인력 550여 명을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혁신지원사업에 대해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들 전문인력들은 기업혁신 컨설팅인력으로서 공단의 중소기업 종합경쟁력 강화사업인 구조고도화사업 등에 집중 투입되어 업체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술, 생산설비, 인력분야 등 제반 생산자원을 효율화시키는 방안을 도출하여 현장에 적용하게 된다. 특히 금년부터는 정책자금의 직접대출 및 산용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 컨설팅과 연계할 예정이므로 대학교수 등 해당 지역전문가들이 공단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보다 신속한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허청·산업은행, 특허가치 50% 대출 지원

특허청(청장 김종갑)과 산업은행(총재 유지창)은 우수 특허보유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권을 담보로 한 자금 지원 대출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이 내용을 담은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수 특허기술이 국가 경제력 강화를 위해 적극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능력과 기술력 및 사업성은 우수하나 부동산 등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특허청은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5억원 가량의 평가비용을 지원하며, 산업은행은 심사를 거쳐 사업성 및 성장성이 있다고 평가된 특허가치금액의 50% 이내에서 특허담보액을 인정, 을 상환기에 총 500억원을 대출 지원키로 했다.

기보, 사이버 컨설팅 서비스 실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은 지난 1일부터 인터넷으로 기업컨설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이버 기술·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객의 기술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구축된 이 서비스는 기술 및 경영컨설팅 지원, 벤처창업교실 안내, 거대기업 상품홍보, 구인구직 업무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컨설팅 방법은 사이버컨설팅과 현장컨설팅으로 운용되고 사이버컨설팅은 무료로, 현장컨설팅은 기보에서 소요비용의 30%를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기술신보홈페이지의 사이버 기술·경영컨설팅센터(<http://consulting.kibo.co.kr>)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특허정보 활용전략 세미나’ 개최

과학기술자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전략 세미나’가 지난 1일 오후 2시 KAIST에서 개최됐다.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세미나에는 대덕밸리 내 400여 명의 과학자가 몰려 특허에 대한 관심을 입증시켰다. 행사에 참석한 김종갑 특허청장은 대덕이 R&D특구로써 본격적인 연구성과의 상업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독려하고 “물리 등 기초학문에 있어서도 특허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특허가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베리타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철희 변리사가 “이공계에서 개발하는 모든 것은 다 특허가 될 수 있다”며 연구개발과 특허 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발명진흥회 윤권순 수석연구원은 “특허정보를 알아보지 않고 R&D를 하는 것은 등기등본을 떼지 않고 집을 사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계획’이 의거됨에 따라 과학기술자의 특허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됐으며, 올 한해 대전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등 전국 25개 주요도시에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VD Scrap



▲ 2005년 2월 21일 전자신문 19면

정부가 발표한 신벤처정책 중 최대 관심거리로 떠오른 '벤처 패자부활 프로그램'의 패자부활 요건과 벤처회생 절차, 시행 예상시점 등을 정리한 기획기사



▲ 2005년 1월 28일 한국경제 B1면

올 한국경제 회생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각 유관기관의 역할 및 벤처관련 지원 내용을 상세히 다룬 특집기사

KOVA Scrap

정부의 벤처 활성화 대책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벤처기업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협회 장흥순 회장과 조현정 차기 공동회장에게 언론의 인터뷰가 쇄도하는 등 '벤처'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 2005년 1월 31일자 한겨레 13면



▲ 2005년 1월 29일자 매일경제 A25면



▲ 2005년 1월 31일자 동아일보 B9면

◀ 2005년 2월 3일자 한국경제 A14면